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豫會令' 改正案, 經濟長官會議통과

漁港施工業界의견收斂調整 規則,例規에도反映토록推進

정부가 입법예고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은 어항시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으로 조정, 지난 10월11일 차관회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도 통과됐다.

한국어항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어항시공업계와 관련되는 예회령 개정안을 시공업체회원에게 통보하고, 시행령개정에 이어 개정될 시행규칙과 예규에도 어항시공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漁港工事 例外조치 工事「隨契」도 可能케

협회는 지난 3월 31일자 一로 정부가 예산회계법을 개一정요강포함데 이어 시행령도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시공업계의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마련, 재무부는 물론 농림수산부와 수산청, 조달청 등 관련행정기관은 물론 여·야정치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어항공사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적시, 어항시공업계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의 관련 법인 제86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의 용어정의에서 어항공사를 예외로 조치하고, 또한 단서규정의 계약성질 또는 목적에 의해서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어항공사가 포함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개정안에서 제1252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구조물공사의 용어정의에서 어항공사를 예외조치시 본항목(가)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당초 시안에서 삭제된 (나)항(작업상의 혼잡 등)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시공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시공자와 계약한 경우)을 추가 반영시켰다.

이밖에도 협회는 제1288조(물가변동)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초 시안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도 1백80일에서 1백20일로 단축 조정했다.

(2면 머리기사 참조)

▼손정식회장

日本全國漁港大會참석차 孫井植회장訪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 26일 일본 靜岡산업회관에서 열릴, 제41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 10월 24일 출국했다.

이번 손회장의 방일은 사또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손회장은 한·일 양국 어항인의 우호친선 증진과 어항개발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손정식회장은 이 대회가 끝난 후 用宗·燒津·靜岡 어항 등을 시찰하고 오는 10월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豫算增額등 4個案協議 日全國漁港大會

일본전국어항협회는 최근의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6일 靜岡市에서 개최하는 제41회 전국어항대회 부의 의안과 대회운영을 심의했다.

의안은 전국 7개지역구에서 행한 대회 및 협의회에서 요망된 사항 등을 집약정리하여 다음 네가지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는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의 예산증액확보의 건 둘째,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1990년도 예산증액확보의 건 셋째, 제4차 해양사업 5개년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의 예산증액확보와 차기 해안사업장기계획의 조기책정의 건 넷째, 어항관계사업에 관련된 지방부담액 경감의 건 등 4개의안이다.

어란진 공사연기

수산청은 지난 9월25일 어란진 준설공사를 해태어기가 끝나는 90년 4월30일까지 지연기하기로 했다.

漁港設計淺海波추정中間報告會 海岸別 特性감안調査

수산청은 지난 10월 4일 한오 어항설계천해파추정 중간보고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 제2회의실에서 열어, 해양연구가 그동안 수행한 기상자료 조사 및 남·서해 도서지방의 천해파 추정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수산청은 남·서해안 지역의 32개항에 대한 설계 천해파를 정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내습파랑에 의한 각종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 시설물의 대응력을 높이는 설계시공과 함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항개발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에 남·서해안 어항설계 천해파 추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산청에서 조홍제 어항과장외 5명, 김용균 해운항만청 포항지방청 측항과장, 농업진흥공사 수리시험장 박창규씨외 3명 등 관련공무원 그리고 대영엔지니어링 정해용씨, 유일종합기술단 문덕환씨, 세광종합기술단 한찬우씨, 세일종합기술공사 송기동씨, 삼안건설 기술공사 이용순씨, 동명기술단 김태연씨, 해양연구소 강시환씨외 6명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해양연구소는 이날 회의에서 동해안은 해안이 단조로워 주로 굴절변형요소로 대부분 어항설계천해파를 추정할 수 있었으나, 남·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굴·회절을 동시에 고려한 근사식을 개발하여 천해파 추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서해의 도서·낙도지역은 내습파랑에 의한 침식현상로 섬자체의 해안선 형태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구조를 이루고 있어 Radder(1979), Booji(1983) 등의 이론을 근거로 포물형 근사식을 개발(KORDI88)하여 천해파를 추정했다고 말했다.

해양연구소는 또한 기상조사와 관련, 기압강하에 의한 해면상승과 해안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수면전단력의 힘에 의해 해안 수면상승을 일으켜 해일현상이 발생하여 인명 및 선박·가옥 등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상조를 고려한 조위로써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진공 대표자는 1989년 8월 30일 서해안에 발생한 해일로 방파제 등 각종 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해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 하겠으며, 해양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도 기술지도와 정보교환 및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연구소는 남·서해안 지역의 32개항에 대해서 어항 설계천해파 추정을 했는데, 오는 11월 5일까지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에 있다.

內손으로 가꾼어항 살기좋은 우리어촌

漁港人位相 格上의契機

建議사항大部分그대로收容

團合된힘보이면難題도克服

「漁港協」意見 單一化奏效

「特殊性을 勘案」관철

焦点

협회와 어항인 모두의 화합과 단결된 힘이 빚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어항인의 현안이었던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0월 11일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특히 쟁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수의계약사유에 관한 사항이 협회가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와 해당 주무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통과됐다는 사실은 모처럼 어항인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동일구조물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되어 많은 어항인들을 애타게 했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시공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시공자와 계약할 경우」의 조항이 협회의 건의대로 반영, 그대로 다시 추가되었다.

또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어항공사가 포함되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현행 90일을 1백80일로 조정하여 입법예고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도 1백20일로 단축, 조정해 관철시켜 놓았다.

사실 이같은 결실이 있기까지 협회는 몇 안되는 임직원이 똘똘 뭉쳐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건의문과 호소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수차례씩이나 제출하기도 했으며,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을 때는 어항인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비록 연륜이 짧고 미약한 홍보매체이긴 하나 매월 발간되는 「어항소식」과 계간 「어항」지를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법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질타해왔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협회는 행여 몇몇 목소리 큰 소수의 협회가 아니라 어항인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어항인 모두의 협회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창립된지 이제 겨우 두돌을 넘긴 협회로서는 회원들이 이렇게 함께 협동하여 힘을 발휘주지 않는다면 지탱하기 어려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난제는 많다.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후속 하위 부령이나 관련예규 제정시 앞으로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항업계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어항인들은 이번 기회에 얻은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한데 모여 의논하고, 힘을 모아 우리앞에 놓인 난제를 하나씩 착실히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항인 모두는 이번의 쾌거를 한국어항협회 집단의 시금석으로 삼도록 하자. 어쨌든 모든 것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確定責任의식 鼓吹
「隨契」事由일부조정

契約금액濫用방지 入札資格요건強化
豫算會計法施行令改正案

경제차관회의는 10월11일 시설공사에 대한 확정계약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경과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산회계법이 의원입법으로 전면개정(89년 3월 31일)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이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남용을 막기위해 당초의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계약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강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설계를 한 자와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24개 수의계약사유 중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계약과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는 것이 불가피한 때 등 2가지를 삭제했으며, 확정계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경과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30일을 연장했다.

(위도표 참조)

▲예산회계법에서 위임한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 수의계약 사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24개	— 좌 동 ○현행사유중 다음 두가지를 삭제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한 때

▲확정계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경과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30일간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 90일이상 경과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120일이상 경과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의 금액이 증감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별도규정 없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第2次 漁港화보製作착수
13個港航空촬영

한국어항협회는 수산청의 수탁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차 어항화보제작과 관련,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남의 ▲안마 ▲원평 ▲서망 ▲서거차 ▲어란진 ▲소안 ▲청산도 등 7개 항과 제주의 ▲도두 ▲애월 ▲모슬포 ▲위미 ▲추자 ▲신양 등 모두 13개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다. (사진은 항공촬영한 청산도항)

委販場 사용敷地
仁川관내調整매듭

금년말 완공예정인 연안항구의 위판장 사용 부지 확보에 경쟁을 보였던 인천지역 관내 수협들의 사용 부지 조정이 일단락되었다.

인천해운항만청은 인천지역 수협들이 위판장부지 사용을 놓고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판장부지에 안전한 입출항과 접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뿐아니라 항내 수질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가두리 蓄養施設 陽性化작업 推進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잦은 어항내 가두리 축양시설에 대한 양성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9월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추자, 신양, 대정, 애월, 금녕, 세화 등 6개 어항에는 2백90개조 1만6백여평방m에 이르는 가두리 축양시설이 돼 있는데, 이들 축양시설이 항내에 있어 어선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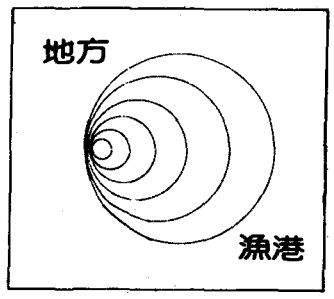
지난 70년대부터 이들 어항에 설치된 가두리 축양시설은 개인이 57개조 어촌계소유 28개조, 수산중매인이 만들어 관할 수협에 기부체납한 시설 1백5개조 등 2백90개조에 이르고 있다.

西海岸 특유의 潮水干滿差와 협소한 港灣구조등으로 사고발생

仁川港內 事故 잦아 構造上問題點등으로

최근 연안부두와 인천항계내에서는 소형선박과 어선들의 잦은 좌초와 침몰사건이 일주일걸러 한 두건씩 발생,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선박사고는 서해안 특유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와 부두 및 잔교 콘크리트 턱받이의 구조상의 문제점, 폭주하는 선박에 비해 협소한 항만구조 등이 사고발생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원들의 계류부주의와 안전대책무방비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양어업전진기지는 해항청이 총사업비 1천7백8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천항 개발계획의 일부로 배 댈곳이 없어 부산항의 연합부두 동명두부에서 3~4일씩 하역을 못하는 등 심각한 체선현상에 시달려온 원양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

三陟港개발順調 90年度 完工목표

5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척항 개발사업이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펼쳐지고 있다.

86년부터 항만시설 확장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5개년 장기계획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척항 개발공사가 올 현재까지 87%의 전체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올 현재까지 이미 6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까지 30여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삼척항 개발공사의 부문별 현황을 보면 방파제 보강공사가 92%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두정비공사가 81%, 물양장 축조공사가 70%의 공정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삼척항 개발공사가 내년말 마무리되면 각종 선박 수협들이 위판장부지 사용을 놓고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판장부지에 안전한 입출항과 접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뿐아니라 항내 수질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海港廳、自體개발안白紙化하고 水産廳·遠洋업계計劃案조정
甘川港개발遲延 免許과정등반발때문

원양업계의 숙원사업인 감천항 원양어업전진기지 개발계획이 매립면허방안도 확정하지 못한채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9월 27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지난 5월 30일 실수요자인 원양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자본 1백88억원을 유치, 부산 서구 암남동 산102 의 2현 감천항내 공유수면 15만9천㎡(약 4만8천평)를 4개구역으로 분할한 후 각 구역별로 매립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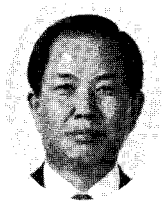
해항청은 이어 6월 20일~7월20일 한달동안을 매립면허 신청기간으로 잡고 접수에 들어갔으나 신청업체는 3개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수산청과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원양업계가 구역별 면허대신 전 구역을 일괄해서 면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항청 면허방안에 심한 반발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해항청은 지난 7월 4일 자체개발안을 백지화하고 수산청과 원양업계와 계획안 재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조정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해항청과 수산청은 종래의 입장만 고수할 뿐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연말 착공은 거의 힘든 상태이다.

실수요자인 한국원협 또는 20개 대형업체를 대표해서 지난 8월 24일 일괄 공동개발방안을 주장한 건의서를 해항청에 내는 등 종래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협중앙회까지 원양어업전진기지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動靜



▲이동배 수산청장은 지난 10월 11일 모하메드(Mr. Shireh Sudi Mohamoud)소말리아 어업자원성차관을 접견하고 양국간의 어업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희수 수산청차장은 지난 9월 30일 부산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오징어유자망 회의 결과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 한·미오징어유자망회의 교섭 결과를 설명하고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업계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김시문 수산청어업진흥관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한·일어업회담에 참석, 자율규제조치와 관련한 양국 어선 등의 조업부제를 협의했다.

▲수산청 직원 90명은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양규섭씨 소유 2천여평의 논에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의 하나로 벼베기를 지원했다.

▲박희재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월 28일 가락동 수협공판장내 활어경매장 및 서울공판장을 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휘 수협중앙회 부회장은 지난 10월 8일 수원 상록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5회 수협회장기쟁탈 전국테니스대회에 참석 선수들을 격려했다.

회원가입

▲김민영씨(국립수산진흥원 제주수산연구소장)

기금기탁

▲정주흥씨(상호산업 주식회사 부장)와 김용하씨(주식회사 서해 부장)는 89년 가을호 「어항」지에 게재한 원고료 전액을 협회회관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

세미나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 10월 16일 하오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해양개발연구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수산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가 후원하여 개최한 해양항정일원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발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고달익 조합장)은 총3편12장으로 구성된 「제주시 수협사」를 발간했다.

제주시 수협사책자에는 1938년 제주도 어업조합으로 설립된 이후의 역사와 어민생활의 변천과정을 비롯해 제주도 특유의 어민신앙·해녀·어업 등 제주도민의 생활상 등을 수록하고 있다. 4×6배판 7백58쪽 양장본 비매품.

출장

▲이상기씨(수산청 어항과)와 최영수씨(한국어항협회 총무과장)는 제2차 어항화보제작과 관련한 항공사진촬영 감독차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전남 및 제주도에 출장했다.

화촉

▲구청서씨(주식회사 삼건사 전무이사)의 장녀 지연양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 목화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김홍윤씨(부산시수협 조합장)의 장녀 혜영양이 지난 10월 24일 12시30분 부산 부산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회비납부

■단체: 분담금

▲성보건설산업 주식회사(박섬태 사장)

■개인: 연회비

▲이상기씨(수산청 어항과)

▲신석순씨(수산청 어항과)

▲조영원씨(수산청 어항과)

▲박경국씨(수산청 어항과)

▲현인주씨(주식회사 서해도두현장 대리)

▲김용하씨(주식회사 서해 부장)

내방

▲배환갑씨(영생건설 주식회사 회장)

▲김일재씨(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이왕렬씨(국제전략경영교육연구원장)

▲윤관식씨(전 수산청지도선선장)

▲이원옥씨(수산유통경제신문 주간이사)

▲임동언씨(주식회사 한국항공 상임감사)

▲박성태씨(성보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장)

漁港이용調査委개최 日本

일본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는 이번에 三浦市 三崎에 있는 神奈川縣 漁連三浦支店 회의실에서 三崎漁港 고도이용계획책정조사의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조사의 개요와 1988년도에 실시한 三崎어항과 관련된 환경실태조사의 중간보고를 행함과 동시에 금년도의 조사계획을 설명하였다.

실태조사보고에 관계수산단체는 물론 三崎新港을 이용하여 활어의 출하를 하고 있는 업자, 해양레저관련업자 등 여러관련자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全北道, 어청도港防波堤건설建議

폭풍來襲때漁船被害잦아

현지實情 檢討결정

수산청

전라북도 도지사는 지난 8월 30일 내습한 폭풍으로 어청도 항내에서 어선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청도항 방파제를 신설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했다.

한편 수산청은 이번 전라북도 도지사의 건의와 관련, 현지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 일본제일의 규모와 기능을 자랑하는 新長崎어항

「日本第1」을 자랑하는 新長崎어항開港

일본 제1의 규모와 기능을 구비한 新長崎어항(長崎市三重地區)의 개항식과 신어시장의 개장식이 지난 9월 29일 신어항에서 京谷수산청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1천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현재까지의 長崎어항은 만안에 위치하고 있어 좁으며 공업항과 상항(商港)들과의 불편한 관계와 협안안벽의 수심이 얕고 얕은 갯벌과 박지(泊地)도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의 중심지가 되어서 어항배후지의 확장도 곤란하여 어항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1971년도부터 新長崎어항의 개발을 구상하여 그 장소를 「三重地區」로 결정하였다.

長崎縣은 일본국에서도 유수의 다양성을 지닌 해역을 가진 해양縣으로써 바다를 통하여 외국과의 교류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어항에 있어선는 동해, 황해의 국제어장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어항개발비의 이념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국제해양도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년의 세월과 약 1천3백억엔의 거액을 투자하여 新長崎漁港과 어시장시설이 금년에 완성되었으며 시장면적은 22만1천5백평방메타, 안벽연장 3천1백m(완성분)가 된다.

第2回 漁港사진公募

10月末까지 韓國漁港協會로 提出

21世紀 先進漁港으로의 발돋움

21세기를 향한 선진어항으로의 발돋움을 촉구하고 어항개발을 촉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항사진을 공모합니다.

본회 회원과 어항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어항사진공모에는 수산과 관련이 있는 흑백이나 칼라 4×5이상의 규격의 사진을 출품하면 됩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직장·성명을 게재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어항협회로 제출하시길 바라며, 작품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격: 본회 회원 및 어항관련 종사자

■출품대상: 수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 및 규격: 흑백및 칼라 4×5(이상)

■출품점수: 제한없음(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성명)

■출품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출품기한: 89년 6월~89년 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①심사: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선행

②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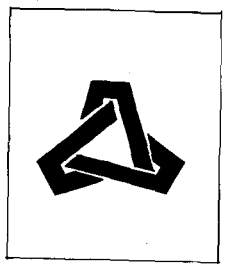
동상: 10만원

■시상: 89년 12월중(별도개별통지)

■기타: 출품작품은 본회 귀속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한국어항협회

安全·安定·雄志부각



韓國漁港協會 마크

이번에 확정된 한국어항협회마크는 삼각형의 고형적 형태에서 오는 안전·안정·웅지의 느낌을 어항협회에 부각시키고자 TTP를 변형 디자인한 것으로 이 디자인은 회원들간의 강한 결속력과 응집력을 나타내고 안정된 기반위에서 오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상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협회를 상징하는 마크제작을 위해 먼저 회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도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 도안업체에서 보내온 5개의 시안을 얻어 서면결의로 부의, 이사 18명중 13명의 동의를 얻어 본 마크가 최종 채택되었다.

新安군신장리地先 1種어항指定건의

신안군수협 양두평조합장은 지난 10월 4일, 한국어항협회에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지선을 제1종어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회원들의 결속과 공동이익 증진을 상징하고 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으로써 어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협회마크를 확정했다.

알림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한국어항협회는 회원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 옹호하는 한편 협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관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관건립을 위한 재원은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우선 회원들의 정성부터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어항협회가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회관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금을 기탁해 주셨고, 특히 본회 발행기관지인 「어항」지와 「어항소식」을 우선 기금으로 몽기로 했으며, 그 깊은 뜻과 큰 정성이 소망하신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지에 심혈을 기울여 글을 써 주신 분들께서는 원고료마저도 선뜻 패척하시는 등 실로 본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감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회관 건립의 반석이라할 이 갸륵한 「정성」을 우선 기금으로 모아 본회 회관건립에 기울여 주신 분들께서는 원고료마저도 선뜻 패척하시는 등 실로 본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감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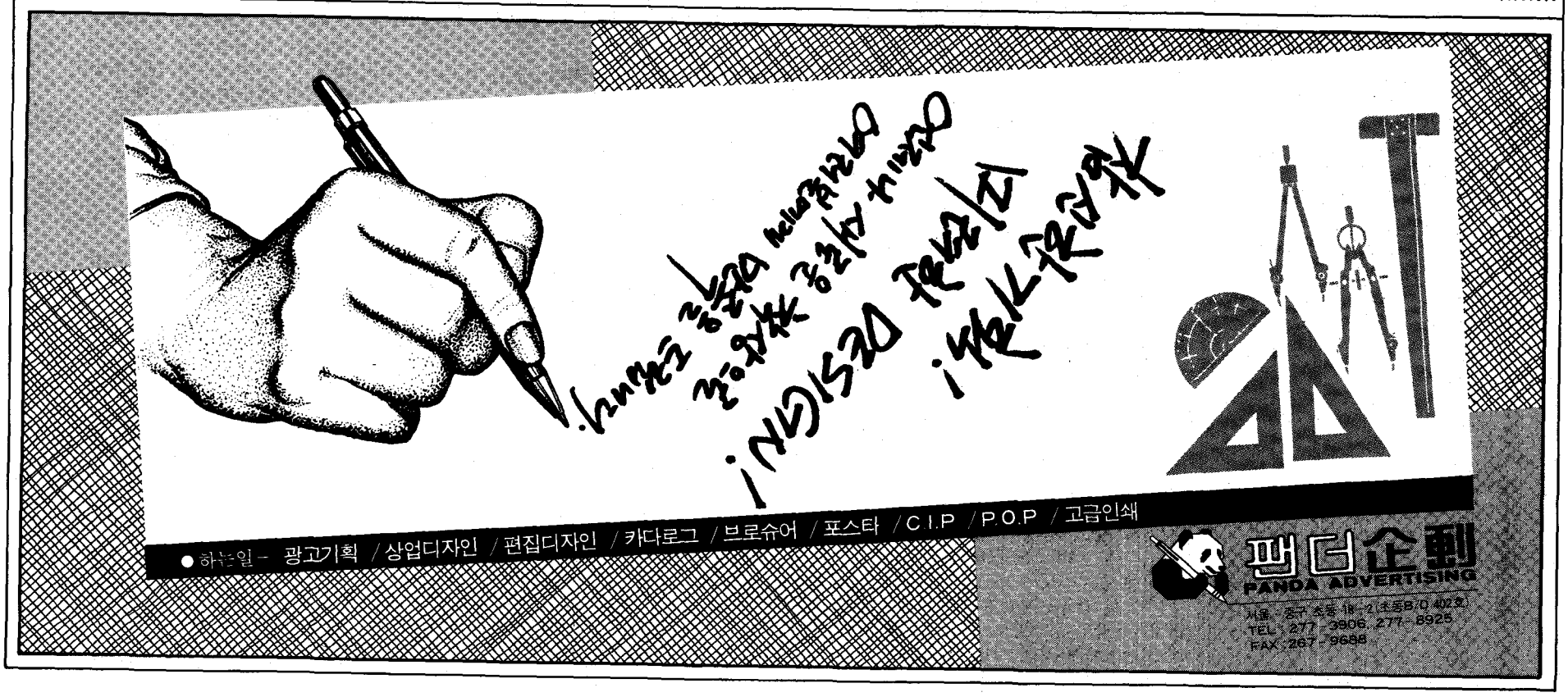
따라서 본회는 회관 건립의 반석이라할 이 갸륵한 「정

會員權益옹호 基盤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 주택은행언주로지점 482601-87-002039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

어항계획에 필요한 조사항목

1-2 경제 및 사회조건 조사의 구분과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조사결과의 이용범위
어업생산	어획량	어종 및 어업종류	○ 어종별어획고·양륙량(연월별) ○ 어업형태별어획고·양륙량(연월별) ○ 성어기어획고·양륙고(연월별)	○ 어항규모의 결정(처리소, 제빙냉장시설,가공시설등 육상기능시설) 장래의 어업 동향검토
		어장	○ 어업종류별·계절별의 어장(항으로부터의 거리도 포함) ○ 어장의 어종별·계절별양륙량 ○ 어업형태별(어선어업·양식어업등)어획·양륙고	○ 장래의 어업동향검토 어항규모(급유시설)의 결정
		자원량	○ 어종별어획고·양륙량의 경년변화·어선/척당어종별양륙고의 경년 변화	○ 장래의 어업동향 검토
		규제등	○ 기간, 양, 어기, 선형, 척수 장소의 각규제	○ 장래의 어업동향, 선형의 동향 검토
		취업자수	○ 작업별(직접생산에 종사하는자, 유통가공에만 종사하는자, 기타)취업자수 및 어업종별 취업자수	○ 장래의 어업동향 검토
		취업자의 연령 구성	○ 성별년령구성	○ 장래의 어업동향 검토
	어업자	취업자의 소득	○ 어가소득 ○ 어업소득 ○ 겸업의 비중	○ 장래의 어업자 동향 검토
		자본	○ 어선어구등의 자본내용	○ 수당투자액의 결정
		생활관습	○ 조업습관	○ 어항의 이용형태 검토
		소비정도	○ 어가의 연간지출액과 구성 ○ 의식조사	○ 장래의 어업동향
	경영체	조합등의 조직	○ 협동조합·개인경영·회사경영·생산조합등의 조직의 수·조직의 내용, 속해있는사람의 수	○ 장래어업의 동향, 어항의 규모 검토
		자본	○ 자본내용 ○ 자산	○ 수당투자액의 결정

방·어

살맛 뛰어나 회즐기는 미식가에 인기
1m넘는 대형도…동·남해에 분포

방어는 전갱이과에 속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잿방어, 부시리와 함께 방어아과에 속한다.

방어는 전장이 1m가 넘는 대형어로서 우리나라 동해, 남해에 널리 분포한다. 방어의 생김새는 긴 방추형으로 약간 측편되어 있다.

색은 등쪽이 청색을 띤 초록색, 배쪽이 은백색으로, 전형적인 표층성 회유어종이다.

몸에는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뚜렷한 노란색띠가 있다.

형태는 부시리와 비슷하지만 제1등지느러미 가시수가 부시리보다 하나 부족하고, 황색의 세로띠가 부시리 만큼 뚜렷하지 않다.

방어는 1980년대에 국내에 들어와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해상가두리양식의 주 대상어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모양새와 살맛이 뛰어나 생선회를 즐기는 미식가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소금구이〉

■재료

방어	2토막
고운소금	2큰술
레몬	1개
은박지	약간

■만드는 법

①방어는 싱싱한 것으로 골라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7~8cm길이로 토막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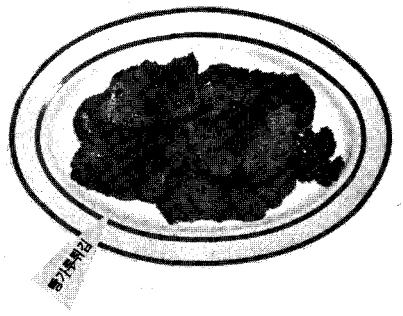
②방어 토막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다.

③방어에 간이 배도록 소금을 뿌려서 20~30분 정도 절여 둔다.

④레몬은 4조각으로 은행잎 모양이 되도록 썰어 놓는다.

⑤풋고추는 너무 맵지 않은 것으로 골라 꼭지를 따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작은 것은 그대로 두고 큰 것은 절반으로 가른다.

⑥석쇠에 은박지를 깔고 ③의 방어를 놓아 속살까지 잘 익도록 굽는다.



〈빵가루튀김〉

■재료

방어	500g
양배추	500g
레몬	1/2개
파세리	20g
달걀	1개
밀가루	1/3컵
청주	1작은술
생강즙	1작은술
맛소금	1/2작은술
후추·조미료	각 1/6작은술
콩기름	튀김용 1컵
빵가루	

■만드는 법

①방어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청주, 생강즙, 맛소금, 후추, 조미료를 뿌린다.

②양배추는 곱게 채쳐 냉수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빼 놓는다.

③레몬은 얇게 저며 반달로 썬다.

④①의 방어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묻혀 180℃되는 콩기름에서 튀겨낸다.

⑤접시에 양배추를 담고 방어 빵가루튀김을 담은 후 레몬과 파세리를 곁들여 낸다.

♣生·活·經·濟

'과다혼수'…이래선안된다

결혼비용 불합리하게 지출한것 후회하기 일쑤

딸의 결혼날짜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P씨는 요즘 은행 출입이 잦아졌다.

장농은 물론이고 컬러TV·냉장고 등 전자전기제품과 다른 예물등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P씨가 예상한 딸의 혼수비용은 8백만원이다.

"농이 몇자 짜리요"

"12자 짜립니다."

"그렇다면 김씨네집 건너방이 알맞겠군."

셋방을 찾는 신혼부부와 복덕방 노인의 대화다.

농의 크기에 맞춰 셋방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혼수와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를 들어왔다.

어느 돈많은 사람은 결혼하는 막내누이에게 자가용을 사주고 몇천만원의 지참금까지 주었다느니,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밍크목도리를 예물로 받았다느니, 시아버지 예물로 금 한냥의 마고자 단추를 하는것이 유행이라느니 별의별 얘기가 많다.

'딸많은 집은 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이 들지 않는다' '딸셋 시집 보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등 혼수에 얽힌 속담도 적지 않다.

옛날의 혼수는 대개가 아무리 많다해도 시댁식구에 대한 옷종류의 예물과 신부 한사람이 필요한 필수품(주로 옷가지)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혼수가 결혼조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부동산투기 등으로 재산을 모은 신흥졸부(猝富) 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른바 1등 신랑을 사는 풍조가 유행하면서부터 혼수사치는 극에 다다른 느낌이다.

아파트가 혼수로 등장해서 증여세를 물고 신부의 예물이 시댁식구에 대한 뇌물화되어 입방아에 오르기도 한다.

제주도의 감귤농장까지 혼수감으로 등장되기도 한다.

의사신랑에게 딸을 시집보낸 어느 재벌은 병원을 개업시켜 주겠다는 '약속장'까지 쓰는 세상이다.

또 장래성있는 공무원에 약학대학을 졸업한 딸을 시집보낸 어느 돈많은 사람은 시내 요지에 약국을 차려 주었다.

정부가 79년 만든 표준혼수 모형은 사실상 사회일반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혼수적다' 파탄까지…요즘의 결혼풍조 바로잡아야

20여년 애지중지 기른 딸을 시집보내면서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인들 없을까.

따라서 그만한 힘이 있어 혼수 많이 해주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욕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호화혼수의 파문은 혼수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결혼이 혼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풍조가 더욱 문제다.

마치 결혼이 혼수를 위해 존재하는 착각마저 준다.

평소 혼수의 병폐를 얘기하던 사람도 정작 자신의 일로 닥치게 되면 자신도 혼수의 병폐에 말려들고 만다.

회사원 K씨는 그런 풍속의 희생자다. 얼마전 결혼한 K씨는 30만원의 월급에서 매달 10만원씩을 뗀다.

직장생활 2년만에 결혼하면서 그의 수중에 있었던 돈은 1백만원 남짓 뿐.

대학까지 부모가 간신히 보내줬지만 결혼비용은 혼자 힘으로 마련해야 할 형편인지라 빚을 내서 3백만원짜리 전세방을 얻고 65만원을 들여 신부에게 3푼짜리 다이어몬드 반지를 해줬다.

물론 앞서 결혼한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결혼예물을 간소하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었고 신부와는 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양쪽 어른들이 섭섭한 눈치를 보이고 해서 무리하다는 생각을 무릅쓰고 남들이 하는대로 해줬다.

그리고는 지금 매달 10만원씩을 떼면서 후회하는 것이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30%가 결혼비용을 불합리하게 지출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혼수의 여파가 결혼생활에까지 연관,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과다혼수로 후회하는 신혼부부들은 겉치레보다 형편 돌아가는 대로 분수에 맞게 지불했던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요즘 같아서는 평범한 사람이 분수를 지키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시집가는 딸에게 호화혼수보다는 예의범절과 생활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더많은 행복을 안겨 준다는 이치를 왜 모를까.

딸을 낳으면 뜰에 오동나무를 심었던 옛날의 지혜가 아쉽다.

♣生·活·經·濟